

하이퍼폴리스

건축가 이종호의
공공연구 프로젝트

정귀원

건축리포트 와이드(와이드AR) 편집장



하이퍼폴리스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건축연구소 기획,
간담미디어랩, 2015

언젠가故 이종호(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한 지역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기막힌 화술로 반신반의하는 주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마도 철저한 사전 학습과 사심 없는 진정성, 탁월한 프레젠테이션 등이 빚어낸 결과일 것이라 추측하면서, 당시 그의 능력에 새삼 놀라워하였다.

이종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째 되는 날 발간된 「하이퍼폴리스-건축가 이종호의 공공연구 프로젝트」는 이 같은 그의 능력, 즉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 감수성이 풍부한 손”(김봉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묶였다.

故 이종호의 공공연구 작업을 알리려는 취지로 기획

건물 설계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종호의 공공연구 작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이 책은 그가 어떤 공공연구 작업을 하였는지, 또 그 작업의 의미는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공동 연구원과 제자의 글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의 출판 과정을 기술한 김태형 도시건축 대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보고서가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있는 비공개 문서로 남아 있는 탓에 기존 보고서의 단순 요약 편집이 어려웠던 까닭도 있었지만, 그보다 공동 연구원이기도 하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학생들이 출판을 위한 모임을 열고 내용과 취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다고 한다.

이종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째
되는 날 발간된
「하이퍼폴리스-
건축가 이종호의
공공연구
프로젝트」는 그의
공공연구 작업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는 모두 13명의 필진이 쓴 13편의 글이 실려 있다. 산학협력단 자료에 의한 참여 공공연구 작업 59개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작업까지 포함한 것 중에서 몇 건을 선정하고 공동 연구자의 협조를 구하여 4차례의 발표 과정을 거친 후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중 강수미 동덕여대 교수의 '공공연구와 건축가: 서울 세운상가에서 발터 벤야민 미학을 강연한 맥락'과 장용순 홍익대 교수의 '이종호가 남기고 간 궤적들'은 그가 실천적 작업에 앞서 이론적 배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잘 말해 준다.

실제로 이종호는 이론과 실천, 실천과 이론 사이의 교차를 위해 GSUA(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전문사 과정)에 '이론과 실천' 과목을 개설하여 들뢰즈, 프랑수아 아셰르, 제인 제이콥스, 앤디 메리필드 등을 읽었고 복잡계·다양체·창발 등의 화두를 중심으로 도시를 이해하고 담론을 확장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SEOUL GRID'의 탐구란 이름으로 강수미 교수를 초청하여 추진하던 발터 벤야민 미학 세미나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세운상가 작업실에서 계속된 마지막 세미나였다.

도시개발사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족적

이 밖에도 이 책에는 그의 폭넓은 관심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공공연구 작업이 수록되어 있다. 감자꽃스튜디오를 사례로 든 유희시설 활용과 폐교 연구라든가(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재생과 활력 그리고 창조를 위한 공간') 나주 도래전통마을 조성계획 연구(박성진 <공간> 편집장, '전통마을의 인문학을 설계하다') 등은 그가 "건축가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계획 영역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이선철)임을 입증한다.

또 그의 제자로서 한강 연안지역과 임진강·한탄강 연안지역의 활용방안을 함께 연구한 정이삭은 공공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두 개의 수계 연구 과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지를 스승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담아 글로 표현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선정 사무소 디렉터가 쓴 리얼DMZ 프로젝트는 그 명칭이 역사적·지리적 구조 분석을 통해 임진강 주변의 대안적 잠재력을 제안한 연구 프로젝트 <대안의 땅, 임진강>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써 리얼DMZ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이종호의 연구에 있음을 밝혔다.

전원도시 과천 비전 수립연구를 소개한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지속가능한 과천의 길라잡이, 이종호'는 과천 지속가능발전 특위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이종호의 순수한 노력과 열정을 가감 없이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특위 활동을 통해 발제 및 토론, 시민공청회는 물론 스튜디오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이끌어 냈다. 특히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의 교수 200여 명과 학생들을 참여시킨 11개의 '과천 (집단) 스튜디오'는 조명래의 말마따나 과천 도시개발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족적이다.

이종호는 또한 ‘창의성을 발휘시키는 업무공간’을 화두로 기업 업무공간의 변화 추세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그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혁신적 업무공간의 지향점을 연구보고서에 제시하였는데, 글 ‘기업 업무공간의 창의성 제고 연구’에 따르면 이종호가 제시한 ‘기업에서의 창발적 공간’이란 도시건축론의 창발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그가 평생 탐구해 온 도시건축론이 기업공간 맥락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서울과 평양의 대화를 위한 열정: 두 도시 공공영역의 상보성을 중심으로’는 미래한반도연구모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종호는 북한 연구, 통일연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해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모인다는 생각에서 북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꾸려진 것이 ‘미래한반도연구모임’이라는 학제적 연구팀이다. 21세기 후반 통일의 시기에 보다 나은 서울, 보다 나은 평양, 나아가 보다 나은 한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둔 이 순수 연구모임은 2011년 3월에 발족되었으니 최근 활발한 북한 연구들에 비해 한 걸음 앞선 행보였다고 할 수 있다. 변창흠은 이 글에서 “서로 인연이 없던 연구자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주제를 매개로 서로 연결하여 공동의 생산물을 만들도록 조직하고 관리해 내는 것은 (이종호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회고하였다.

좋은 뜻, 좋은 정신을 실천으로 잇는 것은 남겨진 자들의 몫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 ‘하이퍼폴리스(Hyperpolis)’이다. 이종호는 <을지로-창발로 바라본 12개의 도시 건축적 시선>의 서문에서 하이퍼폴리스란 도시화 과정이 ‘불연속적이며 균열을 내재한 근대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한국과 아시아의 도시를 일컫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이퍼폴리스의 개념은 을지로에서 구체화된다. 이종호는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혼란스러워진 을지로와 그 주변 영역에 어떤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2012년 을지로를 빼대 삼아 간선도로 주위에 펼쳐져 있는 도시 구조, 도시 자원, 도시 생활의 현상을 일종의 잠재력으로 읽어 보려는 작업과 2013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세운지구의 잠재력을 끌어당겨 (세운상가군 내외부 공공영역의 네트워크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을지로와 접속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는 이 세운상가 보존과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세상과 작별하기 전 작업실을 아예 현장으로 옮기는 행동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그는 이 프로젝트를 미완으로 남긴 채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좋은 뜻, 좋은 정신을 기리고 실천으로 잇는 것은 언제나 남은 자들의 몫이자 의무이지 않을까.

그에게서 공공
연구자가 갖춰야 할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
감수성이 풍부한 손”,
더불어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희생정신을
본 제자들과
동료 연구자들이
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